

'삼성'의 '초격차 DNA'로 제조 현장 탈바꿈

전북자치도-삼성전자,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추진 '호평' 참가기업 11곳 현장, 기술·혁신 멘토 도움으로 생산공정 혁신 열풍

전북특별자치도가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도내 제조현장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수십 년간 국내외 제조현장에서 활동해 온 기술·혁신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생산공정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 대상인 70개 기업 중 11곳의 제조 현장이 혁신과정에 돌입했다. 참가기업의 15% 정도가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정도이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삼성의 '초격차 DNA'가 도내 기업에 이식되면서 기업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먼저 입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 출신의 멘토들은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멘토들의 조언에 따라 제조 현장을 개선하고 혁신계획을 발표하는 킥오프(Kickoff) 회의를 도(道)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킥오프를 완료한 기업들 대부분이 이번 사업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증진, 현장 중심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개선안이 제시되는 데 놀라고 있다. 40년간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멘토 그룹장으로 활동 중인 김정국 씨의 말처럼 '초초를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았던 삼성의 노하우'가 도내 중소기업에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국 씨를 비롯해 30명으로 구성된 기술, 혁신 멘토들은 삼성전자에서 생산성 제고를 담당했던 제조 현장의 달인들이다.

이들은 3인 1조로 대상기업을 방문해 1~2주 동안 과제 발굴에 돌입한

다. 과제 찾기가 완료되면 6~8주간 기업에서 동고동락하면서 현장 개선에 나선다. 도와 지자체는 멘토들이 제안하고 기업이 동의한 혁신 개선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에서 단련된 달인들이 매서운 눈으로 관찰해 내놓은 개선안은 분야와 업무를 가리지 않는다. 생산공정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과 같은 지능형 공장 도입에서부터 공간 배치와 설비 관리, 노동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혁신 활동까지 개선안에 담겼다. 출근 후 차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던 자투리 시간에 하루 업무를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조회를 도입하라는 개선안을 받은 기업도 있다.

또한,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삼성전자 임직원 전용 소풍몰 입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참여기업들의 의욕도 북돋우고 있다. 도에 따르면 달라진 공장의 모습에 만

족한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투자를 하고, 도내 모든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불리일키고 있는 혁신 열풍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도입할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서 혁신의 열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면서, "제조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의 선두에 합류하며, 성장의 결실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나누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70개의 기업을 포함해 99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300개의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은 유형에 따라 4천만 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사업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연말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기업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삼성발(發) 제조혁신을 도내 기업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이성계의 유산, 관광자원으로

전북자치도-전북연구원, 오늘 정책 포럼 개최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자산 활용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연구원은 조선 건국 632주년을 맞아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 대한 현대적 고찰과 함께, 그가 남긴 시대정신과 역사 문화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덕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가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 조선왕조의 뿌리가 되는 전주주의 경이전, 조경묘, 조경단 등 태조 이성계 관련 문화유산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덕주 교수는 "이성계는 한반도 동북쪽 변방의 무장에서 조선의 창업 군주로 성장했다"며, 역사적 자산의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자로 는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 양영관 소장이 나선다. 그는 전북이 전국 태조 이성계 역사 문화자산 중 70%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 활용한 관광 거점도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양 소장은 복합문화시설 건립, 프리미엄 식당 운영,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리더십 역량 강화 등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세 번째 발표는 전북연구원 장충희 연구위원이 맡아, 전북이 자랑하는 태조 어진, 조선 건국 설화, 전주한옥마을 등의 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태조 이성계 전당'과 같

은 복합문화시설의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태조 이성계 자산을 기반으로 융합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규희 전주시 문화유산과장은 왕의 공원 프로젝트와 연계한 관광정책 개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홍선 이성계 리더십센터 연구소장은 태조 이성계를 통일 대한민국의 통합 아이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경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전북자치도는 태조 이성계 역사 탐방, 유적 사진전,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이성계 역사탐방 활성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맞아, 태조 이성계의 건국과 혁신 이미지를 전북의 광역 단위 지역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남)이 주최하며, 전북연구원과 이성계 리더십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영농조합법인 선우 바이오가 후원한다.

이번 정책 포럼은 태조 이성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12일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안전기원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전북소방,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김관영 도지사 등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12일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과 상호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과 공은태·윤정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도내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전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개회식에서는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완산여성 의용소방대 최수연 대원 등 15명이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 기여 및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의용소방대원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 15개 시·군 대표로 2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출전했으며,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심폐소생술 등 3개 종목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

공은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오늘 경연대회가 의용소방대원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그 결실이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재난의 순간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는 의용소방대원의 열정과 헌신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회를 통해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는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총력'

만족도 높은 답례품 개발·기부자 예우 강화 등... 기부 참여 적극 유도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열차역 귀성객 캠페인·이벤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복리증진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에 6만 4천 건의 기부가 이루어졌고, 총 84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며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은 바 있다.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기부자 유치 노력이 반영된 성과다.

또한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부 실적 뿐만 아니라 제도의 내실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답례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사업화해, 기부로 적립된 포인트를 다

시 사회에 환원하는 재기부 사업은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답례품 구성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기부자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면서 소액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먼저, 출향도민 관리업무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통합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했다. 출향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기부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 전북과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년 연속 기부자와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고향 사랑의 날' 행사 개최는 물론 감사장과 소식지를 통해 기부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답례품의 종류도 농산물뿐만 아니라 관광 체험, 건강식품 등으로 확대해 기부자의 선호에 맞춰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13일에는 도내 KTX 익산역에서 대면 홍보를 진행하며, 도 본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가 답례품 제공 이벤트도 함께 마련해 도민과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부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대표 축제 기간을 활용한 집중 홍보와 연말정산 시기 기부 분위기 조성 등 모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추석 명절 대비 재래시장 안전점검·물가책임관 활동

군산 역전종합시장 찾아 물가안정 현장 점검 나서 성수품 가격 변동 확인, 전기·가스 안전 점검도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산 역전종합시장을 방문하여 물가안정 관리와 함께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해 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과장, 군산시 부시장, 역전시장 상인회 등이 동행하여 추석 성수품 가격 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며 상인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또한, 전기·가스안전공사의 협조로 시장 내 개별 상가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 누출이나 누전 등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며, 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점검 후에는 은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추석 성수품과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도 병행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명절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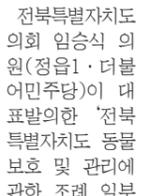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도민들이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맹견 사고 예방 위한 기질평가제 운영 근거 마련

임승식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시행(4월 27일)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도내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해 기질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 평가를 위해 기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맹견 사육 허가 신청 및 기질 평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임승식 의원은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인수는 약 1만1,000건으로 집계됐고, 일일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면서 앞으로 개 물림 사고 등 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맹견 등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반려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1면에 이어... 동부권 특화사업 챙긴다

이에 12일, 임실군을 방문해 특화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것을 시작으로 동부권 5개 지역을 차례로 찾아 해당 시군과 함께 주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임실에서는 육정호 주변을 친환경 관광지역으로 개발 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임실 치즈를 국내 최고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임실 치즈 식품클러스터'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임실군 사업담당 과장들과 소통 간담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또한, '봉어섬 생태공원', '육정호 출렁다리', '요산공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고, 관광객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임실군이 지난 14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치즈와 육정호 개발이 천만 명의 관광객이 임실을 찾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임실 치즈테마파크와 육정호는 전주 한옥마을, 순창 강천산, 남원 광한투원, 진안 홍삼 등과 연계해, 관광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임실군과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함께 모으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